

각 종단 중정 佛誕 봉축법어

“부처님 오시는 길 아름답게 장엄”



조계종 진 계 중정

부처님 오시는 길을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합니다. 사바에 몸을 나누시니 인간세상이 환희에 젖음이요, 이로 좇아 億兆蒼生이 활로를 찾음이로다. 일곱걸음 걸음마다 蓮華藏世界를 나뉘이요 天上天下唯我獨尊一切皆苦我當安之라 하시니, 이로 좇아 만 중생이 生死를 다해 마쳤고 지옥과 천당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고통이 안락으로 번뇌가 지혜로 돌아가며 사바에 어둠이 걷히고 진리의 대광명이 주야로 빛을 발합이라. 집집마다 문을 나섬에 서울로 통하고 집집마다 부처님과 보살님이 맞이함이라.

사바에 瑞光이 처음 깃든 오늘은 부처님께서 강탄하신 날입니다. 이는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니, 나를 위해 등을 밝히는 이는 어둠에 갇히고 남을 위해 등을 밝히는 이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등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등을 밝히고 모든 이웃의 아픔을

같이하는 등을 밝히고 모든 유주무주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등을 밝혀 다 같이 부처님 오시는 길을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바가 어둡다 하나 사바 또한 꿈과 환이거늘, 어찌 어둠과 밝음을 논하며, 마음을 밝히라 하나 이 마음은 본래로 밝아 있음인데 어찌 다시 밝힐 것이며, 마음을 찾으라 하나 한 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 항상 쓰고 살고 있거늘, 어느 곳에서 이 마음을 찾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부대중이시여,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참 뜻을 아시겠습니까? 拂開古佛三千界<불개고불삼천계>요 指出群生一片心<지출군생일편심>이로다. 옛 부처와 삼천세계를 잡아 엮이오, 뜻 중생의 한 조각 마음을 가리켜받이로다.

“넉넉한 수행자로 거듭나길”



태고종 혜 초 중정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신하신 것은 우리와 부처가 하나의 진리체임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상향의 세계는 대 자유, 대 평등, 대 평화와 화합의 맑고 밝은 현실정도 세계, 즉 부처의 세상이었으나 우리의 무지의 업연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춤추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한없이 헤매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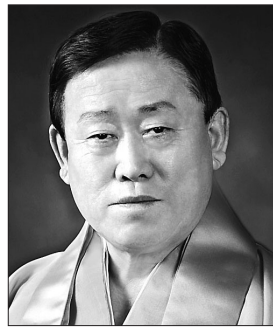
이러하기에 부처님 오신 거룩한 날을 값지고, 불교발전을 위해 크게 발원서원(發願誓願)하는 날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원력으로 우리 모두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설화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불성을 일깨우고 중생의 어둠을 사르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등불을 밝혀서, 화쟁(和諍)의 마음 길 열어 인류 상생의 공동체를 영위하도록 합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을 몸소 실현하고자 하신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오늘에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중생사회를 밝혀 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마음이 아닌 없음을 인지하고, 항상 만나는 이웃들과 진솔한 마음으로 살아 있는 부처님 대하듯 하면, 그 곳이 바로 부처님 세계이며, 정토세상의 실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도의 세상을 열어갑시다

(正道)



진각종 성 초 총인

오늘은 부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함께 마음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공양 예배합시다. 세사(世事)의 뜻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려 시공(時空)을 넘어서 나뉘어 여기 오시는 부처님의 원력에 동참하여 귀명합시다. 부처님은 청정하여 오고감이 자재(自在) 하에 온 법계에 지혜와 자비를 두루 베푸시나 이 땅에는 여전히 아상(我相)이 물결쳐서 내 것 네 것 분별하여 다름이 쉬지 않고 옳고 그름 시비(是非)가 멈추지 못하니 부처님의 이타(利他)의 실천에 참여합시다. 지상(地上)의 강물이 맑고 고요하면 하늘의 달이 천강(天江)에 나타나듯이 중생

의 심성에 부처될 꽃 곧 피워서 공익을 내세워서 사리(私利)를 채우는 비법(非法)의 관행(慣行)을 공도(公道)가 바로 서는 정도(正道) 사회로 밝혀갑시다. 병고와 가난과 불화의 중생(衆生)이 사바(娑婆)의 예토(穢土)에 널리 가득할 때 진각(眞覺)이 진각의 종문을 높이 세우고 참회하고 심인(深信) 밝히는 법문을 베풀어서 육행(六行)을 실천하고 현세를 정화하는 은혜의 세상을 펴신 뜻도 이와 같습니다. 틈바구니 동산에서 화신(化身)을 나타내어 생명 존중의 말씀을 집짓 퍼시었으니 귀천(貴賤)이 세상살이에 걸림이 없고 빈부가 상생(相生)하여 공존(共存)하도록 군생(群生)이 동체(同體)의 큰 품을 열어서 온 세상이 밀업(密業)국가로 되도록 정진합시다.

“인연법 깨쳐 아집 버리자”



총지종 효 강 중령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법신(法身)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먼저 네팔의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네팔과 일본의 대지진, 화산 폭발,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중동 IS의 테러와 전쟁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나와 남, 나와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지를 우리는 자연재해, 환경오염, 테러와 전쟁을 통하여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본불성과 자리아타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본성을 간직한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 이윗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정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은혜



불입종 면 철 중정

일운소우(一雲所雨)에 칭기종성(稱其種性)하여 이득생장(而得生長)하니 회과부실(華果數實)하느니라 <법화경> '약초유품' 중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나 그 종자는 성품에 맞게 성장하여 꽃과 열매를 맺느니라” 초목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 보는 이의 마음에 아름다움과 기쁨을 알게 하며, 과실을 열어 배고픈 이를 구제해 줍니다. 부처님이 사바에 오신 일은 어리석음으로 욕망과 괴로움에 길 잃은 중생들에게 꽃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무한의 베품으로 온 생명을 살리어 더 큰 행복, 더 큰 생명의 자리 연 화화에 모두를 오르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모든 불자들은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일과 본인의 수행을 하고 나아가 구석진 곳에 눈을 돌려 중생구제의 손을 내밀어 자비심으로 불도에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눈뜨고 숨쉬고 살리어 지는 이 생명이 여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부처님 은혜에 함께 감사드리며 봉축합시다.

계율청정 금구성언



불교조계종 혜 인 중정대행

언제나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항상 마음으로 부끄러워 할 줄 알아 나쁜 법은 생사의 근본임을 알아라. 음식의 양을 알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한다.

항상 만족할 줄 알아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 항상 자비로 베풀어라. 항상(生死) 죽음을 염두에 두라.

착한법과 함께 하고 신, 구, 의(身, 口, 意) 삼업으로 좋은 생각을 하라. 항상 공부(佛法)하라. 모든 삼업은 항상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국민은 평화롭고 세계는 화평하다. 남산은 푸르고 산새들 노래하고 하늘은 푸르고 한강은 유유히 흐른다. 밤하늘 은하수 별이 빛난다.

〔봉〕 상월원각대조사 41주기 열반대재 〔행〕

本宗團 重創祖이신 上月圓覺大祖師 41주기 열반대재를 맞이하여 大祖師님의 거룩하신 偉德을 기리고 남기신 遺訓을 받들고자 다음과 같이 涅槃大齋를 奉行하오니 종도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9(2015)년 6월 13일(음. 4. 27)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광명전

증 명 : 종정 김도용 대조사
고 문 : 진운덕 주정산
봉행위원장 : 총무원장 변춘광
부 위 원 장 : 이문덕 김용암 김학송 한광수 이봉춘
지 도 위 원 : 장도정 김동명 용월산 김도산 김국성 조진덕 류화산 김도원 정명구 김부광 김영제 박석구 이덕해 김세운 용덕궁 김유정 김무원 이계문 박해석 신대석 이월장 여문성 고대월 서월궁 김화현 박노승 김형구 이문수 서동일 손준식 한봉록 이기웅 김우영 이종희 김장욱 정병조 고우익 김주식 정계위 박대원 홍승기 조창희 인형무 이태호
총 무 부 장 : 김일도
위 원 : 김진철 이덕중 김경도 신거성 정덕린 남덕화 유구범 서연담 백진호 박기문 장운해 김겨중 노도설 임연태 장형수 김현수 하기수
교 무 부 장 : 방경혜
위 원 : 용도현 류화산 박무안 오안산 설래장 변진달 박지문 이석용 조진강 박보경 윤덕준 박수산 김구수 김광성 서덕재 조동문 김광인 김원재 김도진 유대명 정원공 이성진 박성현 손성도 강홍범 성도봉 이도라 김용덕 김탄성 김경필 추정명 홍현오 정희명 장지오 전선관 김철궁 강수중 김묘연 최경석 박동환
교 육 부 장 : 정장호
위 원 : 남진성 이광도 최문범 이덕주 윤효철

재 무 부 장 : 정월중
위 원 : 윤성화 박인덕 이거해 장혜봉 박명산 손세지 김장우 김동지
사 회 부 장 : 지설혜
위 원 : 이보국 홍성공 이해공 이대덕 장덕일 최건문 설무열 안승오 김경창 하혜안 전백일 안정광 이해명 박정혜 김영운 한윤수
규 정 부 장 : 조용문
위 원 : 김제홍 최인산 강동화 양기석 이정화 김영민 박선현 김지숙 장남일 김계원 이철민 진재경 우성철 임효정 노혜란 전인학 김지영 윤여창 김세훈 한재규

기 획 실
위 원 : 정자운
중정사서실장 : 박덕수
위 원 : 박해석 오상명
봉 행 위 원 : 문광진 류중택 원영만 윤진원 임한영 문해곤 현경호 이현승 정기상 박병호 박용규 임용호 최희문 황세열 김대용 박기봉 김도근 이상원 장대진 황한명 이용호 김영하 윤윤원 김무철 오대환 황계섭 배복선 조일청 윤순자 변정규 손인규 박종순 김성우 강철규 최정일 정순화 조재욱 권태진 김재철 조희형 강재자 오영훈 김삼현 이종성 문호식 이병조 문영주 윤계홍 조윤기 고동국 조원복 김왕진 김권순 김종진 이갑수 이명성 하문성 김길환 김동인 박계립 박옥분 김낙운 최양길 안승철 김병훈 김만호 최성규 임승국 우수자 김근영 이승화 권영평 박종업 김경용 김태석 한한주 오영철 이정호 전만수 이규덕 김성욱 임철순 전대병 윤성기 김경수 김윤태 장영일 김석조 정계선 한준섭 홍영표 이진실 박태주 조경오 윤수현 최광진 한옥철 함의원일동